대로가 眞佛의 모습

뭔큰스님

(불교안양원 이사장)

을 본 적이 없다"며 "스님의 교육에 대한 열의와 불교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소신은 정말 존경할 만 하다"고 말했다.

1932년 경북 상주에서 출생한 덕해스님은 1952년 경북 예천 용문사에서 관응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9년 김천 직지사에서 사교과를 수료하고, 1960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8년 안양에 보장사를 창건하고 1982년에는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을 설립해 활발한 포교활동을 펼이고 있다. 현재 불교안양원 이사장, 1990년에 인수한 학교법인 보문학원 이사장, 2000년 수탁한 안양시노인복지센터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교육·복지불사에 진력하고 있다.

색않아

처' 별칭

"나는 늘 한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출가한 이래 50년 동안 줄곧 포교를 수행이라 여기고 매진해왔습니다. 참선도 좋고 공부도 좋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것이지요.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제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의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나로 인해 더 많은 중생이 이로운 길을 찾았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포교였습니다. 나는 지금도 새벽 3시에 어김없이 일어나서 목탁을 치며 예불을 올리고, 종도 직접 칩니다. 이런 일상이 모두 수행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일상 그대로가 진법(眞法)이자 진불(眞佛)의 모습입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만, 찾아내 일으키면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일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어디에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스님 말씀 끝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수행이라 함은 모름지기 모든 집착을 버리는 것이거늘, 일상에 매달리는 것이 어찌 수행이 될 수 있을까.'

"집착하지 않고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와 보살도 중생을 구하겠다는 원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원도 집착 아니겠습니까.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깥세상이 아니라 바로 자기 속의 '나'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에 대해 억지를 부리는 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나를 위한다는 마음을 벗으면 아무 것도 걸릴 것이 없습니다."

덕해스님은 검소하기로 소문나 있다. 지금까지 그 흔한 승용차 한대 구입하지 않고,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올라갈 때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그것도 '노인우대 무료승차권'으로 다니신다. 심지어는 스님이 기거하시는 방의 구들장이 내려앉아 보일러를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이 됐지만 보장사 관계자들은 고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구들장 고칠 돈이 있으면 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을 위해 쓰라는 엄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스님의 이런 검소함은 계율을 중요시하는 데서 비롯됐다.

"스승이신 관응스님은 속가의 친삼촌입니다. 관응스님께서 늘 말씀하시길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인과의 도리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가장 잘 따르는 것이고, 어떤 원이든 성취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인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원인이 좋은 결과를 낳는 법입니다. 선인선과(善因善果)의 법칙을 무시하고서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교육뿐입니다.

하지만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으로는 안됩니다. 반드시 인성교육이 뒷받침돼야 하지요.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부처님 사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불교대학원대학은 그 근간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고등학생 불자를 양성하는 것 못지않게 학생 불자를 키워낼 지도자들이 자질을 갖춰야만 부처님 법에 따른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덕해스님이 계신 방의 책장 곳곳이 비어 있는 것이 눈에 띄어 그 이유를 여쭈었더니, 그동안 소장하고 있던 3천여 권의 책을 모두 보문중·고등학교에 기증하셨다고 했다. 그리고는 여자 중·고등학교도 육성하고 싶다는 계획을 밝히셨다. 여학생 포교아말로 여성불자의 힘을 키우는 것이요, 불자 여성인재양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계획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에 욕심을 내지 않으니 세상이 나와 다툴 일이 없을 것이요, 이심전심이면 모두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순간 '염화미소(拈華微笑)'가 떠올랐다. 부처님께서 영산(靈山)에서 설법을 하실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니 그 뜻을 아는 자가 없었는데, 오직 한 사람 가섭존자만이 그 뜻을 알고 미소를 지었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깨달은 내용을 언어나 문자를 매개로 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것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어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모든 일이 언어와 문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가시적 결과가 없으면 평가받지 못하는 세상. 그런데 덕해스님은 오히려 거꾸로다. 마음만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일까. 그 마음을 어떻게 세상과 융화시킬 수 있다는 것일까.

오후 5시가 넘었는데도, 아스팔트 위는 해가 중천에 떠있는 것처럼 환했다. 보장사 입구에 장승처럼 서있는 커다란 소나무 네 그루가 시원스런 하품을 하자 강아지 한 마리가 컹컹 짖어댔다. 내 뜻을 세상에 이해시키라는 것인지, 세상 뜻을 이해하라는 것인지…, 스님의 마지막 말씀은 여전히 화두로 남았다. 하지만 확실하게 본 것은 있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겠다'는 스님의 교육철학이었다.

글=한명우 기자 mwhan@buddhap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a.com



◇남골당 내부를 소개하고 있는 덕해스님. 스님은 사회회향을 위해 남골당을 건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포교가 곧 수행" 50년동안 매진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자님은 무엇을 공부하셨습니까."

내친 김에 3년 된 서당개처럼 만용을 부렸다.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이에게 무엇을 내놓으라 합니까."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다. 흔히들 말하는 수행과 공부, 온종일 화두 들고 참선하고, 또는 경전 속에 파묻혀 공양시간을 잊기도 했던 그런 말씀을 기대한 질문이었지만 선문답이 되고 보니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바로잡습니다

본지 366호 12-13면에 나온 송암스님은 죽림정사 조실이 아니라 주지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설곡스님의 스님이야기 지월스님



불교수행의 목적은 지혜의 완성과 자비의 실현에 있다. 지혜의 완성은 자신에 관한 문제이고, 자비의 실현은 타인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다. 지혜와 자비가 둘인 듯 하지만, 사실 그 둘은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처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한국불교는 대승불교를 표방한다. 본래 대승이란 자신의 분제인 깨달음보다 다른 이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자비 실현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특색이다. 그래서 대승불교를 자비의 상징인 보살중심 불교라고 하는 것이다. '성불을 한 생 늦추더라도 중생교화에 내 모든 것을 바치리라'고 서원하는 것이 대승수행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의 실현보다 오히려 깨달음에 더욱 치중하는 감을 주는 것이 오늘날 한국 불교의 현실이다.

보살도를 실현하는 대승수행자는 권위적으로 군림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접받으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이다. 모든 생명의 존재를 인정하고 보살펴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자들이다. 자비실현을 서원하는 수행자들은 그 삶 자체가 이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안을 만한 관용과 어떠한 생명도 지극히 존경할 수 있는 겸허함이 수행으로 다져져 있어야 대승수행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승수행을 주장하고, 겸손을 애써 익히려 노력하고 있는 오늘의 나를 있게한 마음속 영원한 스승 한 분이 있다. 그 분은 일생동안 한 번도 명예나 권력에 눈길을 주지 않았고 대중의 수행을 위해, 불법을 위해, 새로 출가한 수행자를 위해, 자신을 송두리째 헌신하고 살다 가신 수행자다. 한번도 큰소리로 대중을 꾸짖어 통솔하려 한 적이 없고, 한번도 대중을 원망하여 도량을 이끌어 가려고 해본 적 없이 주지 소임을 사신, 보살 같은 스승, 그 분이 바로 지월(指月)스님이다.

지월스님을 처음 뵈온 것은 60년대 중반 해인사에서였다. 그 때 스님은 해인사 선원의 선덕(禪德)으로 계셨는데, 해인사 비상종회에서 해인총림이 결성되자 스님께서 주지에 선임되셨다. 스님은 주지소임을 맡기 전이나 후나 조금도 다름없이 생활하셨다. 나는 그때 해인사에서 행자생활을 다시 하고 있었다.

스님께서는 매일 도량을 여러 바퀴 도는 것으로 당신의 정진을 삼으신 듯했다. 손에 봉투를 하나 들고 도량에 버려진 휴지나 관광객이 버린 담배꽁초를 주어 모으는 것이 일과였다. 그러다가 도량을 급하게 뛰어가는 사미나 행자들을 보면 으레껏 스님은 그들 앞에 나타나시곤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최상의 예를 다하여 허리를 급히고 머리숙여 절을 하셨다. 그 당시 나도 스님과 도량에서 마주치기를 수없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엉겁결에 머리 숙여 절하고 일어서 보면 스님은 여전히 깊숙이 머리를 숙이고 계셨다. 두번, 세번 머리를 숙였다 들었다 해도 스님은 머리를 숙인 채로 얼마나 공손하게 서 계신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일이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몇번을 만나더라도 만날 때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 인사를 하셨다.

그리고는 자상하게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 보살이 무슨 일이 그리 급하여 달려가십니까? 부처님 제자가 되려면 위의가 점잖아야 합니다. 그리 급하게 뛰어가면 화두가 챙겨집니까? 행동이 차분해야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계속되었다. "한국불교의 운명이 스님의 두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어려운 일을 어금니를 지긋이 물고 참아야 합니다. 내가 스

매일 도량내 휴지·꽁초 주워
언제 어디서나 인욕·下心

님에게 한국불교의 장래를 특별히 부탁합니다."

스님께서는 진정으로 한국불교의 장래를 염려하시고 모든 후학에게 그것을 간곡하게 당부하셨다. 그 때 나는 그 '특별히 부탁한다'는 말씀을 듣고 나에게 무엇인가 장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싶어 스스로 은근한 기대를 가지기를 여러 번 하였다. 그러나 나중에서야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특별히'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특별히 부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대에게 '특별히'가 아니라, 스님께서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부탁한다는 것이었다.

어쩌다가 대중이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언쟁이 생기면 당신이 제일 먼저 일어서서 대중을 향해 절을 하고, "그것은 소승의 불찰입니다. 소승이 잘못한 것입니다. 내가 덕이 없고 수행이 부족해 그러한 것이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참회를 하셨다. 그러면 아무도 더 이상 언쟁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인욕정진과 하심(下心)하시는 스님에게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던 것이다. "대중스님네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고래등 같은 지붕 아래서, 거울 같은 장판 위에서, 백옥 같은 쌀밥을 먹으며 해탈을 위해 정진하는 우리가 공부말고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대장부 살림살이가 이만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계속)

구미 영명사 주지

TrekSta

고마운 분들께 사랑을 선물하세요

불심으로 가는 그 길에
언제나 자비로가 함께 합니다!



자비로 제품특징 남·녀 공용 225~265㎜

- 천연가죽 뉴벅의 사용으로 착화감이 뛰어남
- 하이퍼그립의 사용으로 미끄럼방지 및 접지력 탁월
- 특수방수 처리
- 스토퍼를 사용해 워킹시 발의 안정감을 줌
(스토퍼 고정용자석부착으로 착화시 더욱 편리해짐)
- 통기성이 뛰어난 고급삼베 인솔 사용
- 가볍고 편안해서 스님 및 불자들의 신행에 적합

전국 르까프 매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본 사:02-320-0602~3 유통지점:02-320-0795 동서울지점:02-320-0622
남서울지점:02-320-0781 대전지점:042-487-9602 호남지점:062-511-8377
영남지점:051-309-7122 대구지점:053-964-5476

성불화-자비로

Only One Number One
㈜트렉스타
www.treksta.co.kr
TEL: 051-309-3663(代)